

# 한·중 관계의 미래상 특강

## 대진대학교 제38차 중국학 월례특강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 중국학과(학과장 홍희)는 10월6일 오후 2시부터 대학원 209호에서 전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병진 교수를 초빙해 제38차 중국학 월례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정 교수는 '한중관계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중국민족의 특성으로 정체성, 총명성, 신빙성, 상고성, 준법성에 대해 강의하고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혁명기의 권력투쟁과 덩샤오핑의 개방주의 노선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20세기 20~30년대 계몽사상의 만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중국의 오늘날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진다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 중국학과는 10월6일 오후 2시부터 대학원 209호에서 전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병진 교수를 초빙해 제38차 중국학 월례특강을 실시했다.

중국학과 학생들은 벨라민 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특강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의에 초빙된 정병진 교수는 중문학원 원로교수로 평생 중국문학을 연구해왔으며 한국에서 중국문학의 뿌리를 내린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성균관대 총장으로 재직시 중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아시아의 학문적 전통과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특강을 마련한 대진대학교 중국학과 홍희 교수는 "중국의 다양성이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서로의 이익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한중 관계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 계기

## 송우고등학교, 제1회 영어수학 경시대회 개최

송우고등학교(교장 이재이)는 9월20일 토요일 관내 중학교 13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영어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상 수상자로 영어과목 포천중학교 방송대 학생과 수학과목 포천중학교 조성환 학생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포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 신장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아울러 포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어과목은 30문항(듣기평가 10문항), 수학과목은 주관식 10문항으로 평가했으며 문제는 송우고등학교 영어, 수학 교사가 전 교과서에서 골라 출제했다.

이번 경시대회 난이도는 중학교 3학년 과정 60%, 심화 응용 문제 40%였으며 경시대회 결과 영어 과목은 우수미양가 평가로 하면 수에 해당하고 수학은 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시대회 최우수상은 각 과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표창



송우고등학교가 개최한 제1회 영어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다.

및 상금 20만원을 전달했고 우수상은 각 과목별 2명씩 선발해 표창 및 상금 10만원, 장려상은 각 과목별 3명씩 선발해 표창 및 상금 5만원을 전달했으며 특전은 수상자가 송우고등학교에 입학시 1학기분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우고등학교 이재이 교장은 "이번 경시대회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에 교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방과후에 자기 주도학습을 잘 하고 폭넓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며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극히 노력해야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법령준수 및 친절·공정하게 직무해야

## 포천교육청, 반부패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경기도포천교육청은 10월6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등 46개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10월6일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29일 일부 개정된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단위학교일선에서 행정업무에 담당하는 행정실장들에게 알리고, 경기도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에 나선 김학용 포천교육청 관리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 의거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으로 ▶단위학교별로 년1회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각 학교 책임관 지정해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및 규칙준수여부 관리 ▶행정실장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인(4촌 이내 친족)과의 직무는 피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전별금, 단체회비, 사적경비)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권개입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수수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간접한 공직종로의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외부강의(월3회, 월6시간, 1회 50만원 초과시)는 외부강의 신고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 ▶행동강령위반 징계양정규정이 계속 강화, 항상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바람직한 교원의 역할과 마음가짐

## 송우고, 양기석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초청 특강



송우고등학교(교장 이재이)는 9월26일 오후 3시 시청각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교원의 역할과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양기석 부교육감(사진)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양기석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은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통해 "훌륭한 교사의 조건으로 사명감 있는 교사, 비전을 심어주는 교사, 인간관계를 잘 하는 교사,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 프로정신이 투철한 교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사"라고 밝히

고 "교원의 예절로 학생의 이해, 효과적으로 꾸짖는 방법, 옷차림과 이미지, 업무, 교사는 한없이 배우는 직업, 스승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 대해 이재이 교장은 "송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색사업으로 GSBS(Good School Best Teacher) 컨설팅 장학인관으로 마련했으며 신규교사는 물론 기존 교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강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고등학교는 GSBS 사업추진을 위해 10월7일 동두천외교를 방문해 교육방범 등

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영어활성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차별 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포천시 통합부모회 창립 1주년 기념식

포천시 통합부모회(회장 이금선)는 9월30일 오전 11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사무실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통합부모회장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장애 아동을 우리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포천시가 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미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작년 9월 7명이 조출하게 창립총회를 실시했는데 1년만에



와보니 멋진 사무실과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니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경기도 11개 지역 통합부모회가 연대하여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졸업후에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

## 대진대학교, 의정부지방법원 이종언 부장판사 초청특강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 법학과는 10월7일 오후5시 대학원 209호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이종언 부장판사(사진)를 초청해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이종언 부장판사는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힘이 센 자가 사회를 지배했으나 제도가 발전해 이제는 법이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제도의 전개로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고 복수하면 그 사람을 처벌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1시간 40분 동안 강의에 나서며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 재판장의 종교에 따라 성경전체를 복사하여 30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6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이 실시하는 모의재판 결과는 실제로 재판장의 재판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은 신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판결기준 또한 고의로

상습적으로 실시하는 범죄와 중범죄 위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재판장님만 모르는가?" 하고 흥분하여 이야기하는데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재판이 잘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장판사는 "여러분들 판사, 검사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공무원이 되는데는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BEST 보육프로그램 15

## 반편견 교육프로그램

#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저마다 성장배경이 다르고, 생각새도 다르다. 이 다른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작은 세상 속에는 늘 함박꽃 웃음을 가진 아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픈 눈과 마음을 가진 아이, 작은 주먹을 꼭 쥐며 세상에 대한 미움을 가진 아이, 너무 소심해 자기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른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 아동들, 피부색과 생각새가 다른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 등등 우리의 잣대에서 조금씩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들은 다름 뿐이다. 학자들은 아이들은 다름(차이)을 신체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환경의 경험과 인지발달을 통해 편견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편견교육프로그램은 대다란 의미를 갖는다.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은 유아에게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장애, 성역할, 인종, 다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언급할 수 있는 환경을 어린이집에서는 구조적으로 프로그램화 해야 한다.

반편견교육의 실재를 몇 가지 들어보면, 피부색, 피부색에 대한 편견, 상징물, 옷, 식습관, 전

통놀이, 문화유산,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주제로 정한다. 피부색에 관련된 소주제에서는 교육목표 및 내용을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부색의 차이가 생겨났음을 알고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로 정하고 '모든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는 친구'라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만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흑인, 백인, 황인종의 그림을 준비하고, 각 인종이 가지는 비슷한 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판을 준비한다. 교사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경험을 발표하게 한다.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점을 이야기해보게 하고, 실제 모양새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확장 활동으로 각 인종이 가진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 질문카드와 대답카드를 준비해준다.

또한 여러 인종의 모습을 플라쥬로 꾸며준다. 언어활동으로는 어두운 색깔을 가진 물건 찾기를 해보는 것도 색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 될 것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도 대단하다. 현장에 있다 보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통합이 될 때 비장애아에게

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금 불편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행복을 나눈다. 이기심 가득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편견을 학습시킨다.

다문화 가족 역시 마찬가지다. 농촌지역이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어린이가 늘어난다. 이들은 다른 피부색, 조금 다른 외모, 그리고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긍정적 의미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떠나 초등학교에 가면 따돌림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로 비관한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어린이집에서는 실정에 맞는 반편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견 없는 세상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 지길 기대하며 졸업한다.

(011-9717-5206)



김경신  
관인어린이집 원장  
kksun64@nmail.net

**윤정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5. <매일> (1)  
\*(조언) : 국내, 또는 국제간 통신수단은, 편지(Postage), 전신(Telegraph), 텔렉스(Telex), 그리고 팩스(Facsimile/Fax)시대를 거쳐, 정보의 보고인 국제 컴퓨터통신망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전자 메일(e-mail)초고속 시대에 이르렀다. 이 메일은, 가급적 간략하게 쓰고 사진이나 문서설계도 등을 첨부할 수가 있어 편리한 수단이지만 국제적인 통신문의 기본매너는 갖추어야 한다.

\*실례 #1  
\*내용: 지방에 있는 공장직원이, 미지의 한 미국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우리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어 곧 한국에 올 것이니, 공장에서 만나자는 것인데, 이를 보고 받은 본사 회장이 미국의 당사자에게, 이후로는 직접 교신을 하자는 내용임.

February 02, 2007 Korea  
Dear Alexander Smith,  
I'm Jack, CEO of Daeho Group of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I've learnt that you were interesting in our products and once called Mr. Shin working at Daeho Greenhousing Co., Ltd, one of our subsidiaries, in Jinju City, southern province of Korea recently. I would be appreciated if you could call or e-mail me directly from now on for what you're most interesting in.

Hope to have a valuable opportunity in the near future. With our best regards.

Jack Yoon/Cell phone : +82 17 723 4977  
Direct Fax : +82 31 868 2239

문의: 윤정성 (017-723-4977)colyoon@nate.com

**함께 공부해요**

계고(稽古) 편 ⑦

老萊子孝奉二親하더니 行年七十에 作 兒戲하여  
身著五色斑斕之衣하며 嘗取水上堂할새  
詐跌 臥地하여 爲小兒啼하며 弄雜於觀側하여 欲觀之喜 하더다.

나 옛날에는 나이 많은 자식이 채색 옷을 입고 춤추어서 아버지가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일이 흔히 있었다. (011-354-6485)

양주송  
본지 자원위원의교